

담배 문제는 일본이나 한국 뿐만아니라, 지금은 미국도 포함하여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 물질 때문입니다.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은 물론, 옆에 있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. 또 건강한 성인이 피는 것도 위험한데, 임신하고 있는 여성, 또 아직 몸의 기관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독성이나 심각성에 등을 돌리고, 아무런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.

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인제와서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담배가 유해하다고 전면적으로 금지해야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담배는 기호품이기 때문입니다. 자기 자신이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담배를 즐긴다면, 그것을 막을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 이외에 아무도 없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.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. 자기 자신 이외의 인간이 있다면 담배를 피는 일을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 하물며 그것이 공공장소일 경우, 규칙까지는 만들지 않는다하더라도 흡연자의 매너로써 담배 피는 것을 자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 양식이 있는 건강한 성인만이 담배를 필 권리가 있습니다.

흡연자의 매너, 이를 지키면 지금 현재의 담배 문제 중에서 몇 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물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적어도 규칙을 만들거나해서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

담배를 피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기준을 확립시키고 그 이외는 철저하게 막지 않으면 안됩니다. 그리고 흡연자의 매너를 보급시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도록 해야합니다.

담배는 사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충분히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의 기호품입니다. 이를 잊으면 안되겠지요.